마음에 구멍 뚫리면 둑 무너진다

(잠언 6:1~35)

1.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2.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3.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4.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5.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마음에 구멍 뚫리면 둑 무너진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마음에 구멍 뚫리면 둑 무너진다'

오늘 말씀은 1~5절 까지는 보증에 대한 경계이고, 6~11절 까지는 게으름에 대한 경계가 나오고, 12~19절 까지는 불량하고 악한 자에서 비롯되는 다툼과 불화에 대한 경계이고, 20~35절 까지는 앞서서 본 음행에 대한 경계가 다시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구멍이 뚫리면 인생의 둑이 무너진다.'라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의사는 진맥을 통해 사람의 기(氣)를 진단합니다. 한의학에 따르면 사람의 몸은 바람이 꽉 차서 통통 튕기는 축구공 같은 상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공의 생명은 바람입니다. 바람이 빠져서 탄력을 잃으면 더 이상 공이 아닙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별 이상이 없어도 실제로는 기가 소진되어서 바람 빠진 공의 상태가 되면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면역력은 떨어지고 만병이 일어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한의사들은 이렇게 바람 빠진 몸의 상태를 침이나 뜸 혹은 약재를 통해서 보완하여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의학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육체가 아닌 마음을 문제 삼습니다. 축구공처럼 바람이 빵빵한 상태냐 아니면 바람 빠진 상태냐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마음에 바람이 차기 위해서는 절대로 구멍이나 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바람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만큼 구멍이나 틈을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연합’이란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상대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이 영을 바람으로 표현합니다. 구약에서는 ‘루아크’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프뉴마’라고 하는데 모두 바람과 영을 뜻하는 표현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 마음을 바람 같은 영이신 하나님으로 채운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채우기 위해서 마음에는 절대로 구멍이 나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바람 빠진 찌그러진 공에 비유하자면 부정적인 상태로 우울하고 의욕이 없습니다. 작은 말 한 마디나 사건에도 쉽게 상처를 입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찌그러뜨리는 원인을 외부의 조건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찼는데도 결혼을 못 했다거나 혹은 취직을 못한 것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마음은 외부에 있는 세상의 조건으로 인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축구공이나 튜브를 겉에서 아무리 잡아 당겨도 내부에 공기가 차오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은 세상 것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 쪽에서 볼 때에도 마음의 채워짐과 빠져나감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이 알지 못한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체감하기에는 돈이 없거나 연인이 없다고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결코 그러한 조건들이 나의 마음을 채우거나 비울 수 없습니다. 문제는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하늘 바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늘 바람이 들어오면 마음은 통통 튕기는 공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돈이 없는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애인이 없는 상태에서 애인이 있음으로 마음이 채워진다고 여기고 있다면 그것도 착각일 뿐입니다. 하늘 바람이 들어오면 애인이 있든 없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늘로 채워진 상태에서 애인을 만나더라도 만나야 합니다.
가수 백지영 씨의 노래 중에 “총 맞은 것처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실연당한 아가씨의 절규하는 심정을 담았습니다.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뻥 뚫려서 아름다운 추억들이 생각이 나도 손으로 붙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피가 흐르는 것처럼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연당한 여자의 절절한 마음에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남자의 마음에도 공감이 됩니다. 상대가 자신으로 그렇게 마음을 채우고자 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책임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실연만큼이나 마음의 구멍 뚫림을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담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을 빌릴 때에 채권자는 담보가 될 보증인을 요

구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보증인의 재산을 담보로 잡았다가 그것으로 손해를 만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지혜와 마음지킴을 이야기하다가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주변을 보면 보증 때문에 망했다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사업을 한다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보증인을 필요로 합니다. 부모가 집을 저당 잡혀서 보증을 서줍니다. 자녀는 물론이고 친척이나 친구가 보증을 부탁하면 참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딱히 보증이라는 사건만을 염두에 두고 원리원칙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포괄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마디로 마음에 구멍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구멍과 보증이 무슨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앞서 예로 보았듯이 자녀가 대출을 위해 부모에게 보증인이 되어달라고 하였을 때에 신앙인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자녀가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덴동산에는 선악과와 함께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은 곧 사사건건 부딪히는 인생의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지 않겠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 마음은 세상에 대해 단절됩니다. 긍정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마음이 지켜집니다. 세상이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세상이 들어올 틈새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는 마음에는 영이시고 바람이신 하나님만이 들어오셔서 나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에덴입니다. 마음이 채워지려면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대해 판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판단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판단하면 마음에는 구멍이 생깁니다. 구멍 난 마음은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실 수도 없고 채워질 수도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보증인이 되어주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과 무관한 자기 판단에 의한 일이라면 도움을 주려는 부모 또한 어긋난 판단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럴 때에 마음에는 구멍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지 않는 자의 삶에 편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태도를 큰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라고 하였습니다.

번역이 점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직역해보면 '겸손'이라는 말은 원어는 '히테라파스'라고 하는 '나 자신을 짓밟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간구하다'라는 말은 '달달볶는다, 심

하게 재촉한다, 성가시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잠자지 말고 먹지도 말고 보증을 취소해 달라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짓밟고 상대를 들볶는데 체면이나 염치불구하고 채권자에게 가서 보증을 취소해달라고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은 인생이 구멍 뚫린 둑에서 물새는 것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절대로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없는 일에 동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는데 나의 도움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야만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증을 경계하는 구약에서도 돈을 빌려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빌려주더라도 희년에는 본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상대가 자녀나 배우자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면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상대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판단과 무관하게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의 일을 방해할 필요는 없지만 그 일에 편승해서 굳이 나의 마음에 구멍 뚫릴 일이나 마음의 둑을 무너뜨릴 이유는 없습니다.

이어서 6~11절까지는 게으름에 대한 경계가 이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주석서들은 보증에 대한 경계와 게으름에 대한 경계를 다른 주제로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19절을 보면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타락으로 인해 주어진 저주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저주를 먹이를 모으는 개미처럼 충실하게 수행하라함이 아닙니다.
한편 솔로몬이 지은 시편 127편을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하였고, 본문 10~11절에서는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면 /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고 했는데 서로 모순된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편 127편의 제목은 "솔로몬의 시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의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는 말씀의 의미와 같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5~9절에서

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지니라”라고 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부지런히 하여 마음에 틈새와 구멍이 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일하는 이유는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이어지는 33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지혜를 구함에 부지런 하라는 것입니다.

20세에 왕이 된 솔로몬이 했던 일은 참모들과 함께 국가의 정책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엄청나게 부지런해야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세상의 관점에서 보자면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왕의 입장에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세상은 이를 당나라의 현종이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양귀비에게 홀린 것과 같은 상황으로 치부할 것입니다. 일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에 솔로몬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이 개미에게 무엇을 배우라고 하는 것일까요? 개미의 사명은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주님께서 금식 후에 시험 받으실 때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판단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어인 판단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직장에서 사람들은 승진하기 위해 부지런하게 일합니다. 성과를 올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선민은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사사건건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고자 부지런합니다. 선민은 직장에서 하는 일은 판단하지 않음으로 마음에 구멍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직장 안에서 하늘 바람으로 빵빵한 축구공처럼 될 수 있습니다. 승진을 못해도 즐거운 사람이 되고, 성과를 못 올리는데도 조바심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반대로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만큼 내 마음이 구멍이 나

서 세상이 침투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생활은 스트레스의 현장이 되어버립니다. 행복과 기쁨이 없습니다. 에덴이 임할 수 없습니다.

게으름에 대한 경계 이후에는 다툼과 불화에 대한 경계가 나옵니다.
12~14절을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악하고 불량한 자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항상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키기 위해 계획하고 마음을 씁니다.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라는 말은 자기들끼리 암호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항상 뒤에서 보이지 않게 뭔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탄 사람이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지듯이,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일을 부지런하게 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곧 내 판단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판단을 부지런하게 하지 않으면 세상이 마음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불량한 생각들이 자리 잡습니다.
16~19절을 보면 이러한 불량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 /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 거짓을 말하는 망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교만한 눈을 경계하였습니다. '교만한 눈'은 하나님께 판단을 구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 판단함을 뜻합니다. TV 뉴스를 보면서도 자동적으로 판단이 나옵니다. 이미 교만한 눈을 가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완전히 게으른 자가 되어버립니다.
음행에 대한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말씀에서 음행을 유혹의 관점에서 경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에 구멍을 내는 음행에 대해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주셨을 때에는 그 사람과 함께 모든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향할 때에 배우자와 함께 이룰 일들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에는 구멍이 뚫립니다. 하나님의 판단과는 다른 판단을 스스로 해가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초단위로 분단위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항상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내가 판단하려는 나 자신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는 나 자신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쉬지 말고 하나님께 판단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출 때에 곧바로 나의 판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답입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할 때에 마음에 구멍이 뚫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에덴동산에 선악과와 함께 생명나무가 있었듯이, 판단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마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늘 마음으로 바라봄을 통해 마음에 구멍을 내지 않음으로써, 하늘 바람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통통 튕기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 대한 나의 판단이 죽게 하심으로 마음에 구멍이 뚫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안으로 바람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세상을 통통 튕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